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

제35권 23호(나해) 2015년 5월 3일

[묵상]



가지가 살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이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
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 나무를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생명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머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기심, 욕심, 교만 등과 같은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 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입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 오세원 아타나시오&오혜숙 루시아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이필주 바오로, 변해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영자, 주영석 베드로, 이용직, 김종환 야고보, 현시영 요셉, 강홍일 베드로, 이석진 가브리엘, 김수녀,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생)서성용 베드로, 정린다 켄마 & 정엘리스 클라라, 이형삼 요셉, 오세원 아타나시오, 유은상 안젤로, 망자 김소현 파비안나의 은인들, 윤덕영 다니엘 & 마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9,26-31

화답송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 하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
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
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
로다.○

제 2독서 요한1서 (John) 3,18-24

복음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
매를 맺으리라.○

복음 요한(John)15,1-8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
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
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86	186	164
봉헌	409	257	186
성체	352	279	279
파견	327	327	327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택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7) 이성

이성도 은사 식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많은 말을 남긴 바오로 사도는 이성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대가 영으로만 찬미하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심자가 어떻게 그대의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1코린 14,6-19).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앙과 이성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가르쳤다. 이와 관련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유명한 금언을 남겼다. “믿기 위하여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캔터베리의 안셀모 성인(†1109)은“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ides quaerensintellectum) 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성과 신앙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는 데에 필요한 두 날개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 둘이 서로서로 지지하고 있고, 서로가 상대방을 순화시키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한 탐구로 나아가도록 비판과 자극을 제공하여야 하는 관계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이성도 성령의 은사 식별에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누가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려고 한다면, 그 은사가 진정한 것일 수 없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그렇지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유사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에게서 오는 은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이 항상 필요하다.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나라에 ‘포도나무’가 들어오고 포도 재배가 자리 잡는 과정에 선교사 신부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대적인 포도 재배는 1910년경 수원과 독섬에서 포도 나무를 심은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자료에 따르면 안성(현 구포동) 본당의 초대 주임 공베르(A. Gombert, 孔安國, 1875~1950) 신부님이 1910년 이전에 포도를 재배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베르 신부는 자신이 재배한 포도를 이용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여겨지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이자 현대적으로 양조된 포도주였습니다. 선교사들은 포도 농사를 통해 가난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에 대한 목자로서의 사랑이 자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신앙인들은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더 할 수 없이 밀접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란 줄기에 붙어있음으로 인해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다운 신앙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고 하시며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기도 생활에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실천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주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의 계명이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방문을 끝내고 바로 로마에서 한국교회 방문의 의미를 ‘기억, 희망, 증언’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특히 “과거 순교자들의 기억은 현재에서 새로운 증언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사회의 온갖 차별을 극복하는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다시 꽃필 날

폭우를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배를 정박해 높은 파도를 피하고
몸은 더욱 낮추어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기억합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거대한 일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그건 포기하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잠시 피하고 있는 중이란 걸.
폭우처럼, 태풍처럼.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1반 안나회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성모 성월

교회는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성모 성월을 위한 교회의 공식적인 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시기에 묵주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본당 공동체는 5월의 어느 날을 정해 성모상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말씀전례'를 중심으로 '성모의 밤' 행사를 합니다.

◆ 예비자 교리반 환영식

- 예비자 교리반 5월7일(목)부터 개강합니다.
- 환영식 : 오늘주일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5월7일~12월10일, (목) 8:10~9:10PM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5월 안나회 모임을 임시로 변경합니다.

- 시간 : 5월17일(셋째주일) 11시 미사후
- 문의 : 이귀애 데레사 ☎ (562)256-6562

◆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 신자 또는 등록 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선발 방법 : 1차 신청서류 심사, 2차 면접
- 신청 기간 : 5월31일마감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장학금 지급 : 8월9일 예정, 한 학생당 \$2,000
- 문의는 본당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2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5월17일 주일미사 시간 변경: 아침미사(오전 7시30분) 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 10시 미사와 통합
- 체육대회일시 : 5월17일(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주일미사 해설자 독서자 모집합니다.

김 마누엘라 수녀님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오는 5월 24일 일요일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주일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9시30분 학생미사는 영어미사로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 김소연 파비안나의 가족들이 연도와 장례미사에 대한 감사로 11시 미사 후 전 신자께 점심 도시락을 대접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3일(주일) *점심도시락 (고 김소연 파비안나가족)
* 주일학교 : 스파게티 (6학년)
- 5월10일(주일) *토서1,3반 : 샌드위치 (\$3)
* 주일학교 : 피자 (주일학교 자부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구자운	김 명	김성현	김옥찬	김인성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김재희	남성철	양영관	윤화경
	김재영	김재희	남성철	박종열	양영관	오신재		이경수	이현주	이형삼	임한나	정남형	정정현
	유보나	육근주	윤화경	이경수	이현주	이형삼		정혜영	최영신	최재은	최태훈	황인종	송마이클
	임한나	전정자	정남형	정정현	정혜영	최수복							
	최영신	최재은	최태훈	최희숙	호경진	홍석인							
	황인종	송마이클											
합계:\$3,055							합계 : \$1,425						
주일미사 헌금 : \$2,569							장학금 도네이션 : \$10,000						

◆주일학교 썸머캠프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일시: 6월26일 금요일 - 6월 28일 일요일
- 대상: 3학년-12학년 (선착순 30명)
- 참가비: \$60 (no refund)

◆주일학교 첫 영성체반 학부모 모임

- 올해 첫 영성체 대상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 될 예정이니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5월 24일 일요일 10시30분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2015 제 4회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썸포"신청서

- 날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 5월 24일 일요일
- 대상: 모든 한인 미혼 가톨릭 청년
- 장소: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접수: \$100 (Due 5월 10일) \$120 (after 5월 10일)
- 주관: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UYKC
- 준비물: 목주,세면도구, 수건, 침낭, 여벌옷 (두꺼운 옷),
성경, Open Mind

◆2015 FIAT 장학금 프로그램

FIAT SCHOLASHIP PROGRAM2015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2015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FIAT SERVICE RECOGNITION PROGRAM2015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2th)
- GPA3.0이상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차 장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 광미프란체스카617-113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5/15(금) 오전11시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5/8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503-927-0770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25> 최해성 요한
(1811년-1839년)**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먼 친척인 최해성 요한은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교우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제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 힘쓰는 한편,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애공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일깨움으로써 교우들의 신앙을 굳게 했습니다. 이런 덕행 때문에 그는 마을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건진 성사를 받은 최해성은 성령의 특은을 충만히 받아 순교에 대한 원의로 가득 찼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최해성은 먼저 부모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교회 서적을 가지러 다시 집에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으므로 그를 체포하기 위해 쇠도리개로 무장한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이 그에게 일제히 매질을 하며 “교우들이 있는 곳을 대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해성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결박당한 채로 원주 진영에 압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배교를 권하는 관장에게 최해성이 말했습니다. “원주 고을을 통째로 주신다 해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관장이 “꼭 죽을 생각이란 말이나?”하고 묻자 최해성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의를 위하여 죽기를 거부하겠습니까?”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만일 이렇게 죽으면 대관절 어디로 가게 된단 말이나?”하고 묻자 “천국에 갑니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혹독한 고문을 받아 참혹한 몸 상태에 이르렀지만 최해성은 불평하지 않고 오직 예수 마리아의 도움만을 빌었습니다. 이후 여러 주간에 걸쳐 2~3일에

한번 꼴로 악랄한 고문에 시달리던 어느 날, 관장이 다시 최해성을 불러 회유했습니다. 최해성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안 되는 시간의 목숨을 보존 하려 한다면 제 영혼이 영원히 죽을 것이므로 배교할 수 없습니다. 임금과 의를 위해 죽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배반하는 백성이 있다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위대한 천주를 섬기겠다고 맹세한 제가 어찌 형벌을 두려워하여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은 화가 치밀어 한층 혹독한 형벌을 주문했습니다. 이 무렵 하느님께서는 당신 일꾼의 영혼을 한층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최해성이 심한 실망의 유혹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최해성은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렸고, 거기서 쇠약해진 마음을 다스릴 힘을 얻었습니다. 최해성은 오래지 않아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였고 마침내 1839년 9월 6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성모 마리아를 왜 공경할까요?

☞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자, 구원의 협조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공경하는 것이지,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만 드릴수 있는 최고의 예배 행위인 흠숭은 하느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성인께는 공경을 드린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 예비신자궁금증105가지/ 가톨릭출판사

[기도묵상]

마음을 모아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의 궁핍함을 모르는 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애로우시며, 참으로 자비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 성 베르나르도 -